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출애굽기 3:14, 요한복음 3:16

정윤돈 목사님

* **출3:14**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러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까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후대와 나의 현장을 위하여,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갈등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개혁, 그리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 인간의 전적 타락과 복음적 선택

1.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실상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여러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전제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르며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과 쾌락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전적 타락(Total Depravity)'이라고 표현했다. 전적 타락이란, 어떤 물건을 들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하거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하거나 바르게 하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복음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세상의 기준과 덜 나쁜 것의 선택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의 눈이 밝아졌으나 이는 곧 인간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아나 고백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각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곧 다기를 선거를 바라볼 때도 지역주의나 이념에 얽매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투표장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부족하기에 세상은 더 나쁜 것을 막기 위해 덜 나쁜 것을 선택하며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직장생활이나 가정,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장점보다 단점, 선보다 죄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만약 타인의 단점과 죄악만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분열시키고 죽이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살인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계사제도, 성막제도, 군사제도를 주신 것도 인간이 더 큰 죄로 망하지 않도록 허용하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같다.

3. 작은 실천과 영적인 도전 인간 스스로는 완벽한 선을 행할 힘이 없지만 작은 사랑과 작은 인내는 실천할 수 있다. 큰 고통은 참지 못해도 조금은 참을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음식을 관리하며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를 게을리 하면 몸이 더 망가지고 큰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이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고 쉬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찬양과 전도, 선교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풍족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 영적인 도전을 멈추면 그 자리에 사단의 역사가 침투하게 된다.

4. 생명선 : 기도와 호흡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은 기도와 호흡이다.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며 '예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호흡기도를 권장한다. 예배 중에 깊은 호흡에 집중하면 졸음을 예방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의 수준에 맞게 70~80%의 호흡량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년 전 한 방송인이 한의사로부터 스트레칭과 호흡이 평생 건강의 비결이라는 조언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아 현재 몸무게 통증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는 조상으로부터 온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를 이길 수 있도록 복음적인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

5. 하나님께 질문하며 인도받는 신앙 큰 아서를 운영하는 어느 선장님의 일화이다. 파도가 심하게 치던 날, 평소 거던 항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돌리라는 선장님의 지시에 선원들은 모두 당황했다. 선원들은 위험하다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선장님의 고집으로 배를 진행시킨 결과 그곳에서 파산당한 배를 발견하게 되었다. 비록 절반은 목숨을 잃었으나 표류하던 14명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이후 사람들이 그 훌륭한 결단에 대해 묻자, 선장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저는

평소 하나님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도울까요?'라고 질문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날 역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주신 세밀한 음성을 따라 배를 움직였기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간증이다. 많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다. 그러다보니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우리 안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와 악한 성향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앙과 저주의 뿌리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

6. 영적 가계도, 영적 유산 지난주 교회 핵심요원모임에서 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집안은 자살이나 도박의 내력이 있고, 어떤 집안은 정신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이 대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서도 체질화되어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적인 눈은 타인의 단점이나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램프에게 가문으로부터 전달된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물어봤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어머니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할머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좋은 유산이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만 본다면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보기 싫어지고 듣기 싫어진다. 복음은 상대방이 가진 1%의 좋은 점을 찾아 그것을 300배로 키워주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다가 결혼 후 나쁜 점만 부각되는 이유는 좋은 점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해두면 결국 삼키 싫어지는 부분까지 가게 된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좋은 영적 유산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키워 나갈 때, 가문과 개인을 덮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로 채워 나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마한 역사와 축복이 시작된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선포하신 사실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며 여호와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이 되어야 한다. 이를 온전히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거나 적당히 믿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반드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는 것 자체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해야 한다. 수십 억짜리 집이나 좋은 차를 누릴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지라도 그 상황에 놀라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주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건강할 때 자랑하지 않고 몸이 약할 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7. 고난을 대하는 시명자의 그릇 하나님은 큰 문제에게 큰 문제를 주신다. 정치적 도장을 찍어 여러 차례의 낙선과 고통을 이겨낸 이들이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크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이다. 나이나 형편은 중요하지 않다.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처럼 단 하루를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을 움직였던 석가모니와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가졌기에 조금만 기도해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서론 : 스스로 있는 자, 성상임체 하나님 그리고 묵상기록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히브리어로 '하야'에서 유래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으로, 외부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닌 자존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조차 창조하신 분이시다. 태초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은 시간의 원리와 우주만물의 근원을 창조하셨으며,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또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 시간의 흐름(과거, 현재, 미래)과 공간의 차원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주만물을 한 순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함께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가 먹을 것과 탈 것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유를 갖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성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복하는 습관이다. 운동선수가 오랜 시간 훈련 일지를 쓰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단순히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의미를 알고 기록해야 한다. "예수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길 축원한다.

1.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그리스도의 삼종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다.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군이 이 삼중직의 직분으로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인 사단, 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2. 지식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의 복음

복음의 핵심은 지식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 속에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와 교리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던 비극이 많았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 두테르와 캄비오의 대립 등이 그러하다. 프랑스의 개혁주의자들인 위그노들이 수없이 박해당하고, 칼빈이 제네바까지 도망가서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역사는 복음의 껍데기만 잡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준다. 반면 성경 속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은 인물들은 달랐다. 그들은 적국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포력을 행하거나 이념싸움을 하지 않았다. 오직 전진성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왕들을 감동시켰으며, 적국을 돕는 나라로 바꾸어 진정한 평화(שלום)를 이루었다. 우리도 교리나 종교싸움에 빠지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마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

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 즉 공부하고 대학에 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는 종교나 딱딱한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신앙의 참된 시작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데 있다.

3. 예수의 신성 증거 : 7가지 기적과 표적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 일곱 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 1) 요한복음2:1-11 :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창조주로서의 본질적 변화)
- 2) 요한복음4:46-54 :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고치심(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 3) 요한복음5:1-9 :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심(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
- 이 기적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본질을 가진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표적이다.
- 4) 요한복음6:1-15 :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심(만물의 주관자)
- 5) 요한복음6:16-21 : 물 위를 걸으심(자연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
- 6) 요한복음9:1-41 :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창조적 회복)
- 7) 요한복음11:1-44 :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생명의 주권자)

육신의 병이 낫고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과 진리를 보는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좇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성경충만을 받아 참된 길을 발견하길 축원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열심만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복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큰 사를 내거나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 영적인 눈을 뜨길 축원한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복음을 말하다가도 정작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나 갈등이 닥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윤리적 기준이나 교집,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적인 문제들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위기가 오면 복음이 아닌 각인된 종교적 체질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옳고 타인은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체질이다. 복음적인 선한 일은 도무지 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안에서 똑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4. '에고 에이미(Ego Eimi)'와 '하야(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선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일곱 번의 '에고 에이미(나는 ~이다)' 표현이 등장한다. ① "나는 생명의 빛이다",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 ③ "나는 양의 목자이다", ④ "나는 선한 목자이다",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이다",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 ⑦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는 구약의 '하야(Hayah,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제자 도마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배경을 알았기에 속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자 그의 모든 의심은 무너졌다.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도마의 이 고백은 그가 과거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오병이어, 포도주 기적 등)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였다. 역사적 중언에 따르면 이후 도마는 인도까지 전파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은 오늘날 인도신학과 기독교 역사 속에 깊이 남아있다. 의심 많던 도마가 고백했듯이, 여러분은 '에고 에이미', 즉 '하야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분이 곧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란다.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이다"라는 사실이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위기가 올 때 자신의 방법과 영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중독(마약, 알콜 등)에 의존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도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복음으로 거듭나면 그러한 세상적인 집착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무식, 질투, 우상숭배와 같은 모든 자와 운명, 사수팔자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막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한다. 성도들이 가진 오래된 기질이나 성격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가문을 통해 내려온 영적인 유산이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 순례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신도 원치 않는 좋지 않은 모습들은 결코 여러분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영적 결함과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5.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핵심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유산과 개인의 성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뿐이다. 사단의 생각은 철 새 없이 우리 안으로 침투한다. 뿌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활자 자체가 대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사단은 역사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겨진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빼앗으려는 사단의 시간을 줄이고 승리의 시간을 늘리기 위함이다.

- 1) 창조주 하나님인 말씀(요한복음1:1-3, 12)
- (1) 태초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란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길 바란다.
- (2) 영접과 자녀의 권세 :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

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 흑암 속에 있던 인생에 빛이 들어가면 구원이 떠나가고 악몽이 사라지며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②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 속사람 변화, 화평케 하는 자(요한복음3:3, 16)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내 안과 현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지옥 같은 환경을 만든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것들이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살인과 상처, 아픔을 주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남이 시작되며, 영생을 얻음 뿐만 아니라 현상을 살리는 제자로 변화된다. 지옥 같은 고통과 정신병,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진정한 복음은 교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사 속에서 예정론이나 삼위일체, 교파의 정통성을 두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진리와 교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정죄는 다툼을 낳을 뿐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 3) 사랑에서 생명으로(요한복음5:24, 14)
- (1) 원로된 구원 :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선포한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확정된 축복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2) 유일한 길 :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의 길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학업, 경제, 갈등 등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 이 길을 찾길 바란다.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 그리고 황제로 모실 때 모든 문이 열린다.

4) 기도응답의 권세(요한복음14:14, 16:24) 성도는 기도응답을 받을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거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끈질기게 간구했던 과부의 비유처럼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6. 영적 싸움 - 사단의 정체와 말씀의 검(요한복음8:44)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폭로하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목회자나 장로들 사이에 왜 분쟁이 생기는지, 가톨릭과 개신교가 왜 부딪히는지 그 근본이유를 알아야 한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방치려 한다. 이 영적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단을 무시하거나 대충 생각하다가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된다. 사단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를 놓치지 않고 이용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한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인간의 영적 배경은 마귀가 되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체질은 자연스럽게 마귀의 DNA를 따라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가게 된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사람을 살리는 대신 죽이는 쪽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거짓이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진리가 없는 인생은 삶의 모든 부분이 거짓으로 점철된 수박에 없다. 세상에 온갖 사기와 정교한 거짓이 우리를 친다. 이토록 거짓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복음의 빛을 모르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부터 인생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마지막 미션과 전달자의 사명(요한복음21:15-17)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셨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Agape)'를 물으셨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Phileo)' 수준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며 사랑과 믿음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와 복음전파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마치 왕의 편지를 들고 가는 전달자와 같다. 전달자가 얼마나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왕의 뜻이 담긴 편지를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걸맞은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

결론

이 복음, 즉 진정한 주님의 본심이 담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여 세계를 살리고 모든 현상을 살리는 서밋(Summit)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가톨릭과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 참된 복음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 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I와 로봇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더 쉽고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문과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연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교단, 그리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